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소안도의 노란 무궁화, 황근

수목원에서 일하던 시절 사무실 앞에 너른 무궁화 정원이 있었다. 정원에는 노란색, 푸른색, 붉은색, 흰색의 무궁화가 구역별로 식재되어 있었다. 8월 초, 무궁화가 만개하는 계절이면 나는 쉬는 시간마다 무궁화 정원을 찾았다. 이들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홑꽃과 겹꽃, 얇고 두터운 꽃잎으로 형태가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위에 수목원까지 와서 무궁화를 들여다보는 관람객은 없었다. 무궁화는 자주 혼자 자란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다. 그리고 무궁화는 중국 원산이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아니라 사실은 국화 정체성에 자주 걸림돌이 된다. 물론 국화가 자생식물이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이미 정해진 국화가 아닌 거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외래식물이 국화인 경우는 많기 때문에 나는 이 글에서 재배식물로서의 국화 자격을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국민이 국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궁화의 속명은 히비스쿠스(Hibiscus)다. 히비스쿠스속에는 무궁화 외에도 하와이무궁화, 부용, 닥풀 그리고 흔히 카페에서 차로 판매하는 '히비스쿠스티'의 '히비스쿠스'도 속해 있다. 나는 무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히비스쿠스티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 조금 복잡한 생각이 든다. 무궁화와 히비스쿠스는 한 가족인데, 왜 우리는 히비스쿠스를 좋아하지만 무궁화는 좋아하지 않는 걸까.

예쁘지 않아서? 꽃잎 색이 촌스러워서? 혹은 진딧물이 많아서? 이 특징은 히비스쿠스속 식물 전반에 해당되므로 무궁화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 무궁화와 히비스쿠스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나치게 익숙한 존재와 새롭고 낯선 존재에 대한 태도 차이로 볼 수 있다.

물론 무궁화의 특수성도 있다. 우리나라 국가 상징물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무궁화를 사랑해야 한다는 강요 비슷한 교육을 받아온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황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근은 이름 그대로 노란 무궁화다. 무궁화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황근은 우리나라 남부의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이다. 돌은 한 가족인 만큼 형태, 생태도 참 많이 닮았다. 황근은 무궁화와 비슷한 크기의 꽃이 여름 동안 핀다. 꽃 한 송이가 내내 피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란 꽃이 아침에 피어 붉은빛을 띤 채로 저녁에 저 땅에 떨어진다. 무궁화처럼 꽃 한 송이가 지면 한 나무의 또 다른 꽃이 피는 식이다. 다만 여름 내내 꽃을 피우는 무궁화와 달리 황근은 7월에 꽃이 피어 8월에 지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황근 꽃이 피기 시작하면 장마가 시작되고 황근 꽃이 지면 장마가 끝나는 것으로 장마 시기를 유추했다고 한다.

5년 전 완도도 출장을 간 길에 소안도에 들렀다. 소안도에 황근 자생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데다 마침

황근 꽃이 만개하는 여름이기에 한나절 동안 소안도에 머물며 황근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꽤 오래 월랑리 바닷가를 걷다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연노란색의 무언가가 군락을 지어 흠뻑 나는 게 보였다. 황근이었다. 황근 꽃잎 색은 개나리나 히어리와는 또다른 빛깔의 연노란색이었다. 게다가 무궁화처럼 얇은 꽃잎은 투명에 가깝게 배려 있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꽃이 핀 황근을 보면서 무궁화의 형태와 색이 아름답지 않다는 우리의 편견은 무궁화란 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도시의 복잡하고 휘황찬란한 배경에 식재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궁화도 이처럼 드넓고 푸른 여름 하늘을 배경으로 자연스레 살고 있다면, 반대로 건축물이 뻗어오른 도심에 황근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곳의 무궁화와 황근을 좋아하게 될 것인가? 상상해 보았다.

지금 황근의 둥근 잎은 빨갭게 물들어가고 가지 끝에 황토색 열매가 달려 있다. 땅에 떨어진 황근 열매를 집어 드니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볍다. 황근은 아마도 바다를 건너 변형하기 위해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벼운 열매로 진화해온 게 아닐까?

내 손 위에는 한없이 작고 가벼운 황근 열매가 있을 뿐이지만, 어느새 나는 시내 가로수로 심어진 무궁화와 카페에서 마신 히비스쿠스티까지 떠올리고 있다.  
<식물 세밀화>

의료칼럼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원장

비슷하지만 다른 노안과 백내장

노안이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정체의 탄성이 떨어져 조절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휴대폰 속 글자가 흐리게 보이거나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 전환이 느려졌다면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흐려지거나 왜곡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돼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함에 따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것이다.

이런 백내장 증상들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며 그대로 방치해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녹내장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은 물론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백내장이 발생했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백내장 초기라면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이미 수정체가 혼탁해져 있다면 수술이 필요하다.

백내장의 치료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때 노안이 온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두가지 안전환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인공 수정체 삽입술은 개인에게 맞는 크기의 렌즈를 비교정 방식으로 삽입하기 때문에 렌즈의 회전성에 대한 우려가 간간히 있었는데, 새로 개발된 노안 백내장 다초점 프리미엄 인공 수정체 '지메트릭'의 경우는 눈 안에서 렌즈가 회전하지 않도록 회전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섬광 현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른 인공 수정체와 차별화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지메트릭 렌즈는 '지메트릭'과 '지메트릭 플러스' 두 가지 버전으로 난시 교정도 동시에 가능하다. 지메트릭 렌즈는 원거리에 장점을 두었고, 지메트릭 플러스 렌즈는 근거리에 장점을 두었다. 동일한 플랫폼에 동일한 가입도이지만 빛 분배율이 조금씩 조정되어 두 모델의 특성이 다른 만큼 개인의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경우, 인공 수정체의 정확한 도수 선택을 위해 최신 계측 장비를 이용해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공식에 대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백내장을 조기에 발견해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노안까지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지메트릭'과 같은 다초점 프리미엄 인공 수정체 백내장 수술로 수술 후 안경 없이 근거리와 원거리를 모두 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기고

광주의 대표영화 '양림동 소녀'를 아시나요?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정치학 박사

우 김해수의 감동적인 고별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양림동 소녀'는 끝내 시상대에 서진 못했다. 후보작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있는 영화적 성취이자, 불꽃같이 살아 온 임영희 작가에 대한 '신선한 답례'였다.

'양림동 소녀'는 1969년 진도에서 광주로 유학 온 꿈많은 소녀, 임영희의 자전적 다큐 애니메이션 영화다. 군부독재와 민주항쟁의 격동기를 치열하게 살아낸 소녀의 삶이 동화처럼 이쁜 그림과 어머니의 입담 해설, 잔잔한 배경음악에 입혀져 영화로 탄생했다. 양림동에서의 성장 스토리와 대학시절 학생운동, 1980년 5·18 한복판에서 시민군 활동과 12년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장애인으로 살아 가는 현재의 삶이 한 장 한 장 그림 영상으로 펼쳐진다.

처음 접할 때 느낌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했던 임영희 작가의 삶이 존경스러웠고, 아들 오재현 감독의 멀티 재능으로 단편 영화가 똑딱 만들어진 것이 신기했다. 결코 쉽지 않은 양식의 다큐메이션이라는 영화 문법도 새로웠다.

광주에는 이제 '양림동 소녀'라는 대표 콘텐츠 하나가 더 해졌다. 숨막하게 고단하고 쓰라렸던 1970-80년대, 5·18 학살의 폭압과 아픔을 이겨낸 동시대의 삶이 영화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온 것이다. 어찌 동시대 사람들 뿐이겠는가. 11월 8일 전남여고에 '기억의 벽' 설치 기념으로 '양림동 소녀' 영화 상영과 그림 특별전이 열렸을 때 전남여고생들은 임 작가에게

예리한 질문을 쏟아냈다.

"군사독재 시절,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를 작가님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80년 5월 26일 밤 계엄군의 강제 진압작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광주YWCA에서 위험하니 집으로 가라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 등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작가님의 표현이 정말 비장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반짝이는 질문 속에 건강한 다음 세대가 영보인다. 광주의 역사와 정신이 세대를 이어 얼마든지 잘 기억되고 기록되고 계승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TS의 K팝처럼 강력한진 않지만 잔잔한 세대 공감이다.

역시 문제는 스토리와 콘텐츠다. 콘텐츠 없이는 역사도 미래도 없다. 천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콘텐츠가 광주를 살리는 원동력이다. '양림동 소녀'는 그 중 압권이다. 2023년 겨울은 '양림동 소녀'로 인연이 가슴이 따뜻해진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때처럼 괜히 가슴이 뛰고 설렌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양림동 소녀와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도 각자 스토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때 함께 했던 꿈이 한낱 헛되지 않았노라고. 역행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신냉전 극복, 평화통일의 갈망과 의지가 여전히 오늘을 살게 하는 동력이라고 마음껏 소리쳤으면 좋겠다.

社說

'출판 기념회'가 '출마 모금회' 안 되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붓물을 이루고 있다. 북 콘서트라는 이름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SNS 메시지를 매주 2-3건씩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치 애경사처럼 정구서를 받는 기본이라며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북 콘서트가 붓물을 이루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일 기준으로 내년 1월 11일부터는 개표가 금지된다. 출판 기념회는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출판 기념회가 선거자금 모집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면서 '출마 모금회'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출판하는 책 대다수가 자서전 형식인데 자신들이 공을 들여 직접 쓰기보다 돈을 주고 대필 작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정치인의 북 콘서트가 신뢰를 잃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북 콘서트를 자신의 세 과시로 활용하는 점도 문제다. 유력 입후보자의 북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면 일대에 교통 혼잡이 일어날 정도로 복새통을 이룬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신인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무작정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현역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데 비해 신인들은 그럴 수 없어 근본적으로 불공정 게임인 탓이다. 따라서 출마 모금회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출판 기념회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정가에 책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출마 모금회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법안을 통과시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주혁신도시 교통 불편 이대로 둘 것인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째를 맞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인구가 4만 명에 이르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혁신도시와 나주 시내를 오가는 시내 버스는 6개 노선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어 열악한 교통환경이라는 것이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을 이용한 콜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잡히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택시 기피 지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이 야기되는 이유는 버스 등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이 지적된다. 지역민의 대중교통 이동 수단인 버스 가운데 나주혁신도시를 거치는 노선은 총 15개지만, 산단으로 가는 노선을 제외하면 단 6개만이 나주시와 광주를 오가는 노선이다. 더구나 혁신도시에서 나주 시

내로 가는 버스의 경우 배차 간격이 30-40분으로 매우 길고, 광주행 광역버스 2개 노선도 배차 간격이 길어 기다리다 지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9월부터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나주혁신도시 내 다른 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콜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면서 택시영 활성화를 유도하는가 하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등 수요 대비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 또한 이 같은 방안이 부족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혁신도시의 성공 열쇠는 정주 여건을 잘 구성하는 데 있다. 특히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이동이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 마침 교통문제 해법을 두고 지역민과 관련 기관, 운수업계 등이 실무회의를 했다고 하니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無等鼓

봉함엽서와 문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을 떠올릴 때면 나는 가장 먼저 이 두 단어가 생각난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정치인 김대중'도 마음에 남아 있지만 '인간 김대중'의 모습은 어쩌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오래전 '김대중 옥중서신'을 읽었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1980년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교도소에서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가족에 대한 사랑, 국가관, 역사 의식,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등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깊은 해안에 놀랐고, 감옥에서 읽었던 방대한 책 목록에 감탄하곤 했다. 무엇보다 책에 실린 편지를 쓴 봉함엽서의 존재가 인상적이었다. 정치범에게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쓰는 게 허락됐고 그는 가로 10cm 세로 14cm의 자그마한 봉함엽서에 많은 때는 6000자, 원고지 100여장 분량의 글을 썼다고 한다.

'길 위에 김대중'

서울 동교동 집의 문패도 마음에 남는

다. 남편의 이름만 적힌 문패가 걸려 있는 여느 집과 달리 그 옛날에 이미 이희호-김대중 두 사람의 문패를 나란히 내건 모습이라니. 옥중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말로 시작하곤 한 그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며칠 전 정진백 김대중추모사업회 회장이 운영하는 화산 김대중기념공간에 들렀다 김 대통령이 5·18묘역을 처음 찾아 눈물을 쏟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며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다.

그의 삶과 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길 위에 김대중'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내년 1월 극장에서 개봉한다.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만든 명필름이 제작에 참여한 이번 다큐는 관객이 후원을 통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펀딩(30일까지)을 진행중으로 6945명으로부터 4억 1100만원의 모금했다. 시대를 건너온 이었던 김대중의 여정을 다시 따라가며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꿈 꿀 수 있을지 모른다. 언제나 길 위에 있었던, 그를 만나러 가자. /김미은 여론매체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시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항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FAX 222-0195)	
220-0680		(FAX 222-0195)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